

## 보도자료



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

### 발로 뛰는 윤명희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

TEL (02)784-4630 / FAX (02)788-0281 / E-mail : m567h@na.go.kr

[2015. 10. 7(수)]

### 윤명희 국회의원, - 농협경제지주 보도자료 -

#### 1. 유리천장 여전해,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여성 임원 및 간부급 직원(M급) 0%!!

-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여성 직원 정규직 비율 16.3%, 비정규직 비율 61.4%

#### 2.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사업 목표 달성을 마이너스 성장 사업과 신규투자 0원 사업 준비!!

- 사업 성과 사업구조개편 이전보다 실적이 하락한 사업 3개 사업 !!
- 신규 투자 0원도 하지 않은 사업 3개 사업 !!

#### 3. 수조원이 투입된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 만족도 낙제점 !!

-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 만족도 농민조합원 53.42%, 소비자 60.29%, 회원조합 43.01% 등 매우 미흡한 수준

#### 4. 농협 판매장 안전 업무에 취약. HACCP 인증을 17.1%에 불과 !!

- 농협 판매장 축산물 안전 업무 등안시,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

붙임1.

**유리천장 여전해,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여성 임원 및 간부급 직원 M급도 0%!!**

-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여직원 정규직 비율 16.3%인데  
비정규직 비율은 61.4% -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의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 함. 실제,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임원 물론 간부급인 M급은 0% 임
- 또한,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여성 직원 정규직 비율은 16.3%인데 비정규직 비율은 61.4%이며 농협경제지주 및 상장회사인 남해화학 정규직 여성 직원 비율은 7.1%, 3.3%인 것으로 나타 남
- 농촌의 여성 비율이 52%를 차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여성 조합원이 30% 이상인 조합은 이사 1명을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협 여직원에 대한 처우 및 형평성 개선에 대한 여론은 더욱 큰 상황 임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농협이 유리천장을 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컸는데, 농협경제지주 및 관련 계열사는 오히려 다른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보다 여성 할대와 형평성 개선이 시급하다”고 말하면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 함

붙임2.

**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, 사업 목표 달성을 마이너스 성장 사업과**

**신규투자 0원 사업 준비!!**

- 사업 목표 달성을 사업구조개편 이전보다 실적이 하락한 사업 3개 사업!! -  
- 신규 투자 0원도 하지 않은 사업 3개 사업!! -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오히려 사업 목표 달성을 마이너스 성장 사업과 신규투자 0원 사업이 준비하다며 강력한 질타를 함
- 실제, 2014년 농협 사업목표달성율을 보면 ▲농가의 농협출하목표 달성률, ▲공선출하회 육성 달성률(평균 판매액), ▲한삼인 매출목표 달성률 등 3개 사업은 오히려 사업구조개편이전보다 마이너스 즉,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- 뿐만아니라,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신규투자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세워 놓고 ▲공판장경쟁력강화, ▲NH무역 수출활성화, ▲군위 생활물자물류센터사업 등은 투자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남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수조원 자본을 투입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오히려 사업 목표 달성율이 마이너스 성장한 사업과 신규투자 0원 사업이 준비 한 것은 문제”라고 밝히면서 “향후에 철저한 평가를 통해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”한다고 말함

### 붙임3.

#### **수조원이 투입 된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 만족도 낙제점 !!**

-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 만족도 농민조합원 53.42%,  
소비자 60.29%, 회원조합 만족도 43.01% 등 매우 미흡 -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국정감사에서 그 수혜자인 농업인과 소비자, 회원 조합장 및 간부 직원들이 만족도가 낙제점 수준이라고 강력하게 질타 함
- 실제, 농민조합원 및 회원조합 만족도는 겨우 보통(50%) 수준보다 조금 높은 53.42% 60.29% 수준이고, 회원 조합장 및 간부 직원들의 만족도는 보통보다 낮은 43.01% 수준이며, 그중에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만족도 항목은 35.17%로 수준으로 낙제점 수준 임
-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사업구조개편의 가장 수혜자인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임. 더욱이, 경제사업활성화의 최전선에서 노력을 해야 할 회원 조합장 및 간부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업구조개편이 성공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도 드는 상황 임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수조원이 자금이 투입된 경제사업활성화의 수혜자와 주체인 농업인 및 소비자, 회원조합 조합장과 간부 직원 만족도가 낮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”라고 말하면서, “농협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”고 주장 함

#### 붙임4.

### **농협 판매장 안전 업무에 취약. HACCP 인증을 17.1%에 불과 !!**

- 농협 판매장 축산물 안전 업무 동안시,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-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 국정감사에서 HACCP 인증율이 17.1%에 불과하여 농협 판매장이 안전 업무에 취약하다고 말하면서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함
- 농협 판매장은 총 2,114개소('14년말 기준)이며 이중 61.8%인 1,306개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음. 그런데 HACCP 인증 매장은 223개소로 축산물 취급 판매장의 17.1%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남
- 농장에서부터 판매까지 안전관리통합인증 시스템이 HACCP 제도이고,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함. 이에, 축산물의 안전을 선도해야 할 농협 판매장이 HACCP 인증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하지만 10%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축산물 안전이 취약하다는 동시에 안전 업무를 동안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함
- 윤명희 국회의원은 “축산물 안전을 선도해야 할 농협이 안전관리통합 시스템인 HACCP 인증율이 낮은 것은 축산물 안전 업무를 동안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”라고 말하면서 “농협 판매장 HACCP 인증 목표치 설정 등 HACCP 인증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고 실천적인 자료 제출”을 요청 함